〈인문사회계열〉

문제지

	학 교 명	
	성 명	
	수험번호	2 0 1 0 8 P

2020학년도
수시모집 모의논술고사

□ 문제수 및 고사 시간

문제수	시 간	배 점
3	10:00~11:40(100분)	[문제 1]은 총 점수의 34%, [문제 2], [문제 3]은 각각 33%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번호를 정확히 명기
- 계산기와 통신기기 등은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답안지는 1매만 사용해야 하며, 2매 사용 시 무효(0점) 처리
-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볼펜, 사인펜 사용 가능. **연필, 샤프,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문제지의 여백은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
-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 답안지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 답안을 작성**한 경우, 지정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기입한 내용은 채점하지 않음
- **0점 처리 기준**
  - 답안지에 답 이외의 특정 표기나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시를 한 경우
  - 검은색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수정이 가능한 연필류 등으로 작성한 경우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

SEOULTECH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문제 1] 다음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越南)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緖)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 14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작으냐
정말 얼마큼 작으냐....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전문

(나)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軍用)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安)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대여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 씨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專攻)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兵事係)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중략…)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

그때 우리의 대화는 또 끊어졌다.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나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잔을 비우고 났을 때 그도 잔을 입에 대고 눈을 감고 마시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이젠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소 서글픈 기분으로 생각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 또 한 번 확인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다음에 또……'라고 말할까 '재미있었습니다'라고 말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술잔을 비운 안이 갑자기 한 손으로 내 한쪽 손을 살그머니 잡으면서 말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오." 나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안 형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습니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붉어진 눈두덩을 안경 속에서 두어 번 꿈벅거리고 나서 말했다.

(…중략…)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 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사내였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쬐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는 꼴을 하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하게 발라서 카바이드 등의 불꽃이 너풀댈 때마다 머리 위의 하이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선지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서른대여섯 살짜리 사내였다. 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새빨간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그 사내가 나나 안 중의 어느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쪽을 향하여 말을 걸어 온 것이었다.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이라고 그 사내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는 꼭 끼여 달라는 건 아니라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안은 잠깐 얼굴을 마주 보고 나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이라고 내가 말했다.

"함께 가시죠"라고 안도 내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사내는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중간 줄거리] 사내는 아내의 시체를 세브란스 병원에 팔고 받은 돈을 다 써버리고 싶어한다. 나와 안은 그가 달갑지 않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여관에 가는 길에 불구경을 하게 되며, 각자 여관방에 들어가 헤어진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 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 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니까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중략…)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안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일부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1965년에 창작된 작품들로,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제시문 (가)의 ㉠ ㉡과 제시문 (나)의 ㉢ ㉣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바탕으로 두 작품 속 화자의 현실인식과 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문제 2]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사편수회>와 경성 제국 대학의 교수들은 <청구학회>를 결성하여 식민사관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 한국사를 왜곡한 일제의 식민사관은, 한국사가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하고 고대 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정체성론과 주변 역사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는 타율성론을 중심으로 한다. 즉 일제는 우리 민족은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며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였다.

(나)

아름다운 산천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고, 울창한 삼림들은 우리 조상들이 심었으며, 기름지고 넓은 옥토는 우리 조상들이 경작했고, 금·은·동·철도 우리 조상들이 채취했고, 가축, 물고기도 우리 조상이 길러 왔다. 궁실로 비바람을 피하였으며, 의관으로 금수와 구별하였고 그릇으로 생활을 도왔으며,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으로 문명을 창조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우리 조상들의 손때가 묻어서 그러한 것이다. 무릇 우리 조상은 그 무한한 두뇌와 피땀을 다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생산과 교육의 기구를 물려주어 갖추게 하였다. 이로써 대대로 전수하여 우리의 생활을 푸짐하게 하였고, 우리의 도덕을 바르게 잡아 용모와 기상을 길이 멀리 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다른 종족에게 강탈당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살면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니 장차 멸절(滅絶)의 환란으로 빠지려는가. (… 중략 …)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 중략 …) 이것이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다)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된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면 조선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무엇을 '아'라 하며 무엇을 '비아'라 하느뇨? 무릇 주관적 위치에 선 자를 '아'라 하고, 그 외에는 '비아'라 하느니 이를테면 조선인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 등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을 '비아'라 하며, (… 중략 …) 그리하여 '아'에 대한 '비아'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투쟁이 더욱 맹렬하여 인류 사회의 활동이 그칠 사이가 없으며 역사의 앞길이 완성될 날이 없으니,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비아'를 정복하여 '아'를 표창(表彰)하면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 미래 역사의 생명을 이으며, '아'를 소멸하여 '비아'에 공헌하는 자는 투쟁의 패망자(敗亡者)가 되어 과거 역사의 진적(陳跡)만 끼치니, 이는 고금 역사에 바꾸지 못할 원칙이라. (… 중략 …) 이제 조선사(朝鮮史)를 서술하려 함에, 조선민족(朝鮮民族)을 '아'의 단위로 잡고, '아'의 생장 발달의 상태를 서술의 제1 요건으로 할 것이다.

(라)

조선사(朝鮮史) 연구는 곧 과거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의 변동 과정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구명함과 동시에 그 실천적 동향을 이론화하는 것을 임무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법칙인 사적 변증법에 의해 그 민족 생활의 계급적 제관계(諸關係) 및 사회 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그 법칙성을 일반적으로 추상화함으로써만 가능하다. (… 중략 …)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

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하여 다른 여러 민족들의 과거와 동일한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나), (다), (라)는 (가)에서 제시하는 식민사관의 어떤 부분을 비판·극복하고 있는지 서술하고, 이와 함께 (나), (다), (라)의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

[문제 3] 다음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앤디 워홀「캠벨 수프 캔」

팝 아트라는 새로운 미술 분야를 개척한 앤디 워홀은 1960년대 만개하였던 미국의 대중소비문화와 관련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공장이라는 뜻의 '팩토리(The Factory)'라 칭하였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조수들과 함께 작품을 대량 생산하였다. 그는 마릴린 몬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등 스타 이미지, 그리고「캠벨 수프 캔」이나 다른 대중 소비상품들처럼,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대중적 문화 요소를 실크 스크린이라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복제하였다. 대량으로 복제되는 이미지는 그 자체로 미국의 자본주의와 대중문화를 상징하고 전유하는 동시에 그 문화 속에 녹아 있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문화의 진부함과 획일성 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나)

"음악과 예술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장단과 곡조는 영혼 속 깊숙이 들어가서 영혼을 강하게 지배하는데, 만약 사람이 바르게 배우면 음악으로 우아함을 창출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반대의 것을 만들기 때문이지. 게다가 음악으로 바르게 키워진 사람은 그릇된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을 곧바로 구별할 수 있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그의 영혼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들로 양육되어서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 되는데..."

플라톤은 나쁜 음악과 좋은 음악이 있다고 보았다. 나쁜 음악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사회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반면에, 좋은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선한 쪽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덕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만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인간의 영혼을 표현한다면서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직접 연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연주하는 악기를 통해 에토스(ethos: 습관적 행동을 반복하여 형성된 성품)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좋은 에토스가 인간을 덕으로 이끌 수 있다고 여겼다. 예를 들면, 슬픔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슬픔의 에토스가 담긴 음악을 들려주면 음악을 통해 슬픔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헝가리 출신의 미술 사학자인 하우저가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예술사를 서술한 책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술 작품의 감상에서 작품의 내재적인 해석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에 따라 순수 예술이 과도하게 중요시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선사 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20세기 초반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남긴 예술적 유산이 어떤 사회적 연유로 탄생됐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예술이 자율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산물임을 일깨워 준다. 하우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나 특정한 시대의 양식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탄생했는지 밝히면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의 관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설명한다.

(라)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미술계는 물론이고 그의 절친한 친구들조차 혹평을 하였다. 이 그림은 이전에 통용되던 원근법과 명암법, 색채 사용 등을 완전히 뒤엎었으며, 인물을 비상식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기괴한 느낌마저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3차원의 세계, 즉 입체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표현한 피카소의 이 작품은 새로운 회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사물의 객관성을 끌어내려는 노력으로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 되었다.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하는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한 예술작품의 가치는 작품이 지닌 구도와 색채, 그리고 작품 속 리듬과 같은 내재적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동시에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은 최초의 입체파 작품으로서 기존의 예술 작품들과 차별되는 혁신적 양식을 통해 현대 미술의 새로운 사유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시문 (나), (다), (라)는 '예술작품의 가치'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 준다. (가)에 제시된 예술작품의 가치를 (나), (다), (라)에 제시된 각각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글을 작성하시오.(600±30자로 작성하고, 단락 나누기를 하지 마시오.)